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9 LEET 예비시험 [5~7]

계몽된 현대 사회에서 이성이 설정한 최고의 목적은 '자기 보존'이다. 그 결과 자연은 목적 없는 단순 물질이자 자기 보존의 수단으로 전락한다. 오랫동안 자연의 지배를 받아 왔던 인간이 이제 자연을 지배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성 자체가 도구화됨으로써 구체적이고 인격적인 자기는 사라지고 오직 비판 능력 없는 추상적 자아만 보존된다. 호르크하이머는 이렇게 진행된 인간의 승리가 자연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로 귀결된다고 진단한다. 이를 개념화하기 위해 그는 우선 내적 자연과 외적 자연을 구별하고 후자를 다시 인간적 자연과 비인간적 자연으로 나눈다.

인간에 의한 자연 지배가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로 진행된다는 호르크하이머의 명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먼저 인간에 의한 외적 자연 지배는 내적 자연에 대한 억압을 수반한다. 인간은 외적 자연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도구적 이성의 지배를 내면화하면서 자신의 내적 자연을 억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연을 기계처럼 다루듯이 자기 자신도 도구적 이성에 의해 작동되는 기계처럼 다루어야 한다. 도구적 이성으로 무장한 자아가 자신의 내적 자연을 억압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적 자연을 철저하게 억압함으로써 성공한 사람이 이제는 그렇지 못한 사람을 지배한다.

추상적 자아에 의한 내적 자연의 지배가 강자에 의한 약자의 지배 구조를 강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람들 사이의 지배 구조가 자아에게 내적 자연을 지배하도록 강제한다고 볼 수 있다. 자기 보존과 성공을 위해 인간이 자신의 내적 자연까지 가혹하고 무자비하게 공격할 수 있는 것은 냉혹한 지배자로부터 혹사당한 경험에서 벗어나려는 비극적 몸부림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내·외적 자연에 대한 인간의 억압은 인간의 본래적 특성보다는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호르크하이머에 따르면, 외적 자연을 지배하기 위해 인간의 내적 자연을 억압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억압의 주체인 이성과 자아에 대한 '원한 감정'을 더 키워 간다. 특히 이중적 억압의 희생자로 전락한 다수의 대중이 원한 감정에 사로잡힌다. 대중은 한편으로 자신의 자연적 충동을 스스로 억압해야만 하고, 다른 한편으로 보다 성공적으로 내적 자연을 통제할 사람들에게 의해 지배받는다. 이와 같이 억압받은 대중의 내적 자연이 억압의 주체인 도구적 이성에 대해 품은 원한 감정은 폭동의 잠재력이 된다. 일반적으로 원한 감정은 그것의 원인을 제거하기보다 파괴 욕구

로 발전하기 때문이다. 원한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의 내적 자연을 억압하듯 타인을 공격하고 파괴하는 폭동을 일으킨다. 호르크하이머는 이를 '자연 폭동'이라고 부른다. 자연 폭동의 방향은 정해져 있지 않다. 파괴적 공격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향할 수도 있고 처음 본 사람을 목표로 할 수도 있다. 파괴의 대상은 이처럼 언제나 대체 가능하지만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호르크하이머는 여기서 현대의 파시즘이 대중이 품고 있는 자연 폭동의 잠재력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현대적 파시즘은 내·외적 자연을 억압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체제에 자연 폭동의 잠재력을 포섭함으로써 보다 철저하게 대중을 착취한다. 예를 들어 나치는 도구적 이성에 의해 희생된 대중들이 가진, 이성에 대한 원한 감정을 유대인을 향한 자연 폭동으로 이끌어 낸 것이다. 그러나 자연 폭동은 억압된 자연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압을 영속시키는 데 기여했다. 도구적 이성의 전면화에 대항하는 자연적 인간들의 야만적 폭동은 표면적으로는 이성을 비하하고 자연을 순수한 생명력으로 추앙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성의 도구화를 촉진하였으며 내적 자연을 잔혹한 폭력의 주체로 발전시켰다. 이런 맥락에서 호르크하이머는 반이성적 자연 폭동은 도구적 이성의 지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본다. 이성을 거부하는 자연 폭동은 자연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 족쇄를 채우는 데 이용될 뿐이기 때문이다. 족쇄에서 벗어나려면 반이성적 자연 폭동에 의하지 않고, 걸음으로 보기에 자연의 대립물인 이성이 먼저 비판적 사유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1. 밑글의 '자아', '이성', '자연'에 대한 이해로 옳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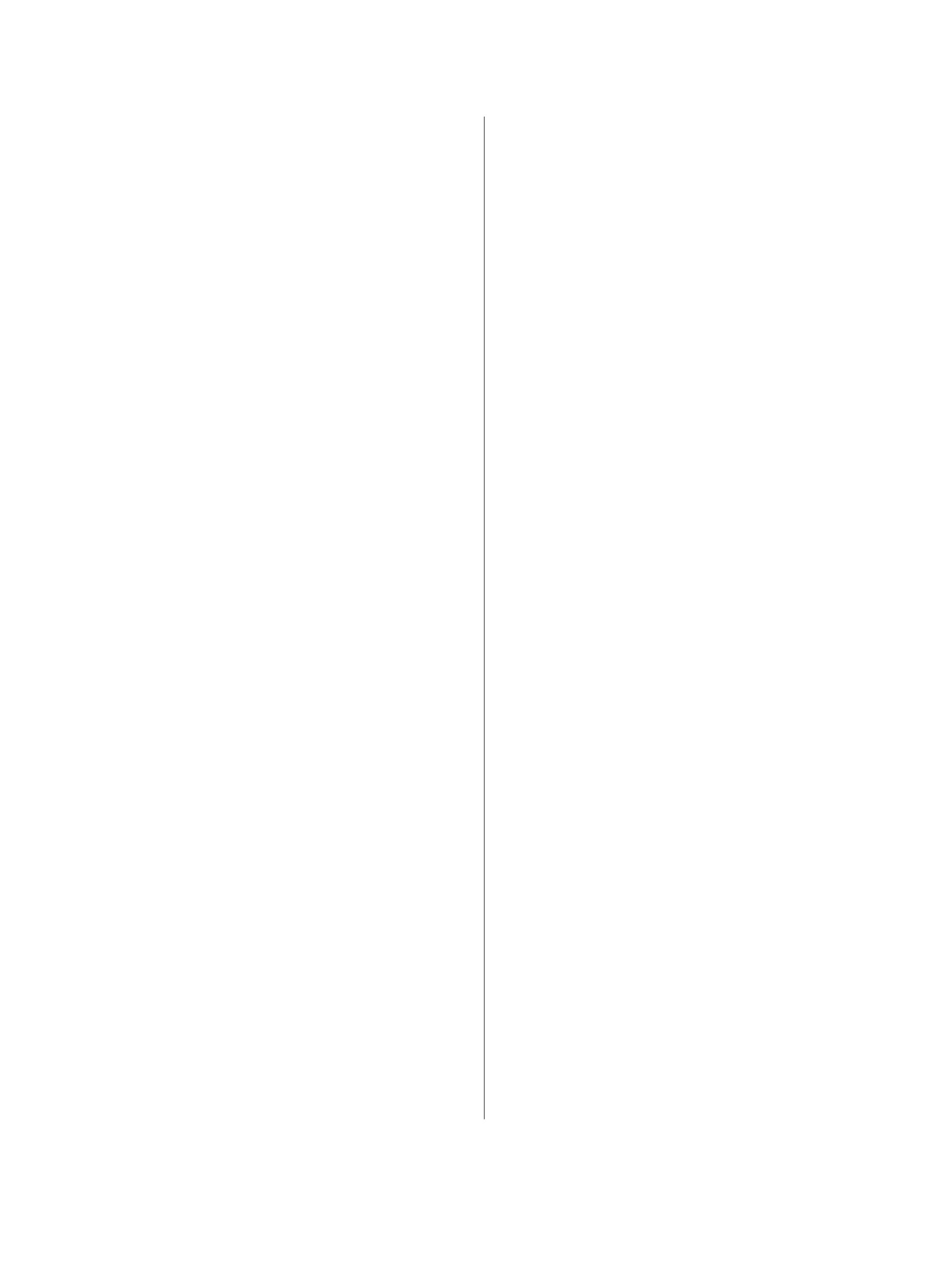
- ① 외적 자연은 추상적 이성과 자아를 가지고 있다.
- ② 나에게 다른 사람은 외적 자연이면서 인간적 자연이다.
- ③ 나는 자아가 없는 내적 자연으로서 기계적으로 살아간다.
- ④ 과거에 자연이었던 것이 이제는 자연이 아니며 자아도 아니다.
- ⑤ 내적 자연이 자아를 지배한다면, 외적 자연은 이성을 억압한다.

2. 윗글로부터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간에 의한 자연 지배는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의 또 다른 형태이다.
- ② 자연적 욕망을 강하게 억제함으로써 성공한 사람은 원한 감정을 갖지 않는다.
- ③ 다른 사람에 대한 폭력이 인간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미화될 수 있다.
- ④ '자연 폭동'은 전체주의의 실체를 밝히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의 권력을 강화한다.
- ⑤ 내적 자연을 통제하는 데 실패한 현대인은 외적 자연의 지배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3. 윗글에 제시된 '호르크하이머'의 입장에 대한 비판으로 타당한 것은?

- ① 이성이 비판 능력을 상실했다고 진단하면서 이성의 비판적 활동에서 희망을 찾는 것은 이미 사라진 것을 있다고 가정하는 자기 모순이다.
- ② 개인적인 심리적 병리 현상으로부터 사회적 억압 구조를 설명하는 것은 개별을 보편으로 성급하게 환원시키는 일반화의 오류이다.
- ③ 자연을 자기 보존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도구적 이성에 대한 비판은 자연 중심 사상을 가지고 이성을 격하하는 자기 기만이다.
- ④ 인간이 자연을 억압한다는 주장은 자연이 기계처럼 작용한다는 검증되지 않은 명제를 가정한 허구이다.
- ⑤ 자연으로부터 해방된 인간이 자연을 억압한다는 비판은 '계몽'이라는 논점에서 일탈하고 있다.



[1~3]

문장 단위 해설 - #1문단

계몽된 현대 사회에서 이성이 설정한 최고의 목적은 '자기 보존'이다. 그 결과 자연은 목적 없는 단순 물질이자 자기 보존의 수단으로 전락한다. 오랫동안 자연의 지배를 받아 왔던 인간이 이제 자연을 지배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성 자체가 도구화됨으로써 구체적이고 인격적인 자기는 사라지고 오직 비판 능력 없는 추상적 자아만 보존된다. 호르크하이머는 이렇게 진행된 인간의 승리가 자연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로 귀결된다고 진단한다. 이를 개념화하기 위해 그는 우선 내적 자연과 외적 자연을 구별하고 후자를 다시 인간적 자연과 비인간적 자연으로 나눈다.

화제를 제시하는 아주 정석적인 문단입니다. 인간의 자연 지배가 어떻게 인간의 인간 지배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호르크하이머'의 생각을 이해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등장하는 키워드가 바로 '내적 자연', '외적 자연', '인간적 자연', '비인간적 자연'입니다. 키워드와 화제 잡고 넘어갑시다.

계몽된 현대 사회에서 이성이 설정한 최고의 목적은 '자기 보존'이다.

'이성'의 목적을 제시합니다. 이성은 자기 보존을 최고 목적으로 한대요. 그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성은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이해해야겠습니다.

그 결과 자연은 목적 없는 단순 물질이자 자기 보존의 수단으로 전락한다.

그 답을 바로 줍니다. 여기서 인간과 자연이 대립되는 두 키워드라는 점을 꼭 생각하셔야 해요. 일단 자연의 속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목적 없는' 단순 물질이자, '자기 보존의 수단'으로 전락한다고 합니다. 즉, '이성'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죠. '이성'의 최고 목적이 '자기 보존'이었고 '자연'이 자기 보존의 수단으로 전락한다는 말은, 이성의 목적 달성 수단으로 자연이 이용된다는 뜻입니다. 이성에 자연이 귀속된다는 느낌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적 유무'를 비교지점으로 잡으셔도 좋습니다. 이성은 '자기 보존'이라는 목적이 있지만, 수단에 불과한 자연은 목적이 없으니까요.

오랫동안 자연의 지배를 받아 왔던 인간이 이제 자연을 지배하게 된 것이다.

재진술 문장입니다. '이성 = 인간'임을 잡고 읽으면 같은 말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지배한다는 건, 자연이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다는 말이죠. 결국 자연이 이성의 목적(자기 보존) 달성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성 자체가 도구화됨으로써 구체적이고 인격적인 자기는 사라지고 오직 비판 능력 없는 추상적 자아만 보존된다.

앗 그런데 문제 상황이 제시됩니다. 인간(이성)이 자연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이성 자체가 '도구화'된다고 해요. 도구화된다는 건 수단으로 전락한다는 말과 비슷합니다. 그렇게 비판 능력 없는 '추상적 자아'만 남게 된다고 하네요.

이성(인간) 자체가 도구화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까지는 생각할 수 있어요. 이성이 자연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성공적으로 자기 보존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도구화(수단화)되고, 비판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등장할 수 있겠군요.

호르크하이머는 이렇게 진행된 인간의 승리가 자연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로 귀결된다고 진단한다.

이 문제 상황에 대한 호르크하이머의 생각이 드러납니다. 여기서 '인간의 승리'는 인간이 자연을 성공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겠죠? 비유적인 표현을 잘 잡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인간이 자연을 지배함으로써, 해방되기 보다는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로 귀결된다고 해요.

여기까지 읽으면 '이성의 도구화'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인간 = 이성'을 같은 말로 잡고 읽었죠? 그럼 이성이 도구화된다는 말은, 인간(이성)으로부터 인간(이성)이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마치 이성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자연'이 인간에게 '지배'를 받듯이요. 인간(이성)은 또 다른 인간(이성)에게 지배를 받는(수단화) 상황입니다. 이 자체가 이성의 도구화인 거예요. 그렇게 또 다른 인간에게 지배를 받으면서 비판 능력을 상실하고 '추상적 자아'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과정이 정확히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도 이해해야겠 습니다. 이에 대한 호르크하이머의 생각이 제시될 거예요. 화제 슬슬 잡히시죠?

이를 개념화하기 위해 그는 우선 내적 자연과 외적 자연 을 구별하고 후자를 다시 인간적 자연과 비인간적 자연으 로 나눈다.

‘인간에 의한 자연 지배 →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로 이어지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키워드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내/적 자연과 외/적 자연이 대조된다는 건 잡을 수 있겠죠? 정확히 정의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내’, ‘외’라는 포인트에서 직접 적으로 갈립니다. 그리고 다시 외적 자연은 ‘인간적 자연’과 ‘비 인간적 자연’으로 나뉘네요. 여기서도 인간적 자연이나 비/인간 적 자연이냐로 나뉩니다. 정확한 차이는 뒤에서 정의를 알려주 는 대로 잡으면서 파악합니다. 군집화하고, 비교지점 잡을 준비 하고 넘어갑시다.

#2문단

인간에 의한 자연 지배가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로 진행 한다는 호르크하이머의 명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 다. 먼저 인간에 의한 외적 자연 지배는 내적 자연에 대한 억압을 수반한다. 인간은 외적 자연과의 싸움에서 승리하 기 위해 도구적 이성의 지배를 내면화하면서 자신의 내적 자연을 억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연을 기계처럼 다루듯이 자기 자신도 도구적 이성 에 의해 작동되는 기계 처럼 다루어야 한다. 도구적 이성으로 무장한 자아가 자신 의 내적 자연을 억압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적 자연을 철 저하게 억압함으로써 성공한 사람이 이제는 그렇지 못한 사람을 지배한다.

아주 중요한 문단입니다. 서술의 초점을 잡고 1문단의 내용을 끌어와야 이해할 수 있는 문단이에요. 앞에서 화제와 등장한 키 워드(내적 자연, 외적 자연)를 정의도 해주지 않고 바로 설명합 니다. 숨겨진 정의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문장을 읽으 면서 자연스럽게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문단입 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는 한 문장씩 보면서 얘기할게요.

인간에 의한 자연 지배가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로 진행한 다는 호르크하이머의 명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서술의 초점을 알려주는 문장입니다. 또 일종의 제진술 문장이 기도 해요. 여기서 ‘인간에 의한 자연 지배’라는 표현을 사용하 고 있어요. 1문단에서 ‘인간의 승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 지 못했더라도, 이 부분을 잡고 정확히 그 뜻을 이해하시면 됩 니다.

먼저 인간에 의한 외적 자연 지배는 내적 자연에 대한 억압을 수반한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외적 자연’과 ‘내적 자연’이라 는 키워드를 정의도 주지 않고 바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자연스 럽게 이해해봅시다. 인간에 의한 ‘외적 자연 지배’는 ‘내적 자 연’ 억압을 수반한다고 해요. 우리가 화제로 잡았던 게 뭐였죠?

‘인간에 의한 자연 지배 →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

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해해야 해요. 일단 인간에 의해 지배 받는 대상이 ‘자연’이니 ‘외적 자연’은 아마 nature(자연)를 포 함한 내 외부의 대상인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나(주체로서의 인

간, 이성, 자아) 이외에 '밖에 있는' 대상이 외/적//자연인 것이죠. 그렇게 인간이 외적 자연을 지배할 때는 '내적 자연'에 대한 억압을 수반한다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내적 자연'에 대한 억압은 인간이 (외적) 자연을 지배할 때 동반되는 '인간 스스로에 대한 억압'인 것 같아요. 주체 내부의 자연이니 내/적//자연인가 봅니다.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고 넘어가봅시다.

인간은 외적 자연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도구적 이성의 지배를 내면화하면서 자신의 내적 자연을 억압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 번 더 재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보고 정확히 파악하시면 돼요. 여기서 '외적 자연과의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도 '외적 자연'의 정의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외적 자연'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도구적 이성의 지배'를 내면화해야 한대요.

여기서 도구적 이성의 지배를 내면화한다는 건, '이성의 도구화'로 인해 비판 능력을 상실하고, '추상적 자아'만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을 뜻할 겁니다. 즉, '추상적 자아'가 자신의 '내적 자연'을 억압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인간은 자연을 기계처럼 다루듯이 자기 자신도 도구적 이성 에 의해 작동되는 기계처럼 다루어야 한다.

역시나 재진술 문장입니다. 자연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인간 스스로를 기계처럼 수단화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비판 능력을 상실하고 '추상적 자아'만 남게 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건, 모든 게 '인간에 의한 자연 지배 →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 과정을 설명하는 맥락이라는 점입니다! 화제와 서술의 초점을 기억하면서 읽어주셔야 합니다.

도구적 이성으로 무장한 자아가 자신의 내적 자연을 억압하는 것이다.

인간이 수단화된다는 걸 다시 한 번 재진술로 표현합니다. '내적 자연'이라는 키워드를 또 사용하고 있으니 여기서는 '내적 자연'의 의미를 파악하셔야 해요. 인간 스스로의 내부에 존재하는 자연을 '내적 자연'이라는 키워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적 자연을 철저하게 억압함으로써 성공한 사람이 이제는 그렇지 못한 사람을 지배한다.

역시나 중요한 문장입니다. 앞에서는 '인간에 의한 자연 지배'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했다면, 여기서는 그 자연 지배가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로 이어진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의 내적 자연을 억압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억압한다고 합니다.

정리할게요.

자연(nature)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에 대한 지배(내적 자연 지배)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아가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로 이어진다고 했죠. 그 과정을 말하고 있네요. 자연 지배에 성공한 인간은 내적 자연을 억압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성공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지배한다고 해요. 이게 지문에서 말하는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인 겁니다.

'인간에 의한 자연 지배 →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의 과정에서 내적 자연을 억압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게 도구적 이성, 추상적 자아의 보존과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지배하는 것으로 과정이 끝나요. 1문단에서 이해한 화제를 '내적 자연', '외적 자연'과 같은 핵심적인 키워드를 바탕으로 '호르크하이머'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핵심은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의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이에요!

해설 Comment

앞에서도 간단하게 언급했지만 조금 더 설명할게요. 앞에서 군집화한 키워드인 '내적 자연'의 두 가지, 인간적 자연과 비인간적 자연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문단을 읽으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인간적//자연은 말 그대로 '**다른 인간**'에 해당하는 '외적 자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에서 다른 인간을 '지배하는 인간'인 것이죠.

이걸 조금 자세히 이해하려면 1문단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일단 '이성'을 가진 인간은 자기 보존의 주체로, 자연을 지배하는 '주체'입니다. 그런데 이 주체로서의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다른 인간'의 지배를 받게 되죠. 이게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입니다. '내적 자연으로서의 인간'은, 자연(nature)을 지배하는 주체이자 다른 인간에게 지배를 받는 주체가 됩니다. 이때 '타인의 내

적 자연'을 지배하는 '인간'이 '외적 자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곧 '인간적 자연'이 되는 거예요.

반면 '비인간적 자연'은 앞에서 파악한 대로 인간에게 지배받는 '자연(nature)' 그 자체가 됩니다. 인간적 자연이 '다른 인간을 지배'하는 인간이었으니, 비/인간적/자연은 '인간'이 아닌 나머지 타자가 될 테니까요. 즉, 인간에 의해 지배받는 자연이 되는 것입니다.

#3문단

추상적 자아에 의한 내적 자연의 지배가 강자에 의한 약자의 지배 구조를 강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람들 사이의 지배 구조가 자아에게 내적 자연을 지배하도록 강제한다고 볼 수 있다. 자기 보존과 성공을 위해 인간이 자신의 내적 자연까지 가혹하고 무자비하게 공격할 수 있는 것은 냉혹한 지배자로부터 혹사당한 경험에서 벗어나려는 비극적 몸부림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내·외적 자연에 대한 인간의 억압은 인간의 본래적 특성보다는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앞에서는 인간에 의한 자연 지배가 일어날 때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번에는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를 중점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내적 자연, 외적 자연과 같은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서술의 초점 잡고, 한 문장씩 읽어봅시다.

추상적 자아에 의한 내적 자연의 지배가 강자에 의한 약자의 지배 구조를 강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람들 사이의 지배 구조가 자아에게 내적 자연을 지배하도록 강제한다고 볼 수 있다.

'추상적 자아에 의한 내적 자연의 지배'는 앞서 보았듯, '인간에 의한 자연 지배'의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인간에 의한 자연 지배'로 인해 강자에 의한 약자의 지배 구조가 강화된다고 해요. 결국은 또 '인간에 의한 자연 지배 →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의 과정을 한 번 더 언급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람들 사이의 지배 구조'에 주목합니다.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가 다시, 자아(인간)에게 '내적 자연'을 지배하도록 강제한다고 해요. 내적 자연은 주체가 되는 인간입니다.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뒷부분을 읽으면서 이해해 봅시다.

자기 보존과 성공을 위해 인간이 자신의 내적 자연까지 가혹하고 무자비하게 공격할 수 있는 것은 냉혹한 지배자로부터 혹사당한 경험에서 벗어나려는 비극적 몸부림이기 때문이다.

재진술 문장인데 어렵습니다. 인간이 자기 보존과 성공을 위해 자신의 내적 자연을 억압하는 건, 자연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인간이 스스로의 내적 자연을 지

배하는 게, '냉혹한 지배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여기서 말하는 지배자는, 자신의 내적 자연을 성공적으로 억압하고 타인을 억압하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인간적 자연'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이요.

어쨌거나 반복되는 포인트는 같습니다.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 타인으로 인해 '내적 자연'이 억압당하는 그 과정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처럼 내·외적 자연에 대한 인간의 억압은 인간의 본래적 특성보다는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네, 그 말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합니다. '인간 사이의 관계'는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와 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문단에서는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등장하겠죠?

#4문단

호르크하이머에 따르면, 외적 자연을 지배하기 위해 인간의 내적 자연을 억압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억압의 주체인 이성과 자아에 대한 '원한 감정'을 더 키워 간다. 특히 이중적 억압의 희생자로 전락한 다수의 대중이 원한 감정에 사로잡힌다. 대중은 한편으로 자신의 자연적 충동을 스스로 억압해야만 하고, 다른 한편으로 보다 성공적으로 내적 자연을 통제된 사람들에 의해 지배받는다. 이와 같이 억압받은 대중의 내적 자연이 억압의 주체인 도구적 이성에게 품은 원한 감정은 폭동의 잠재력이 된다. 일반적으로 원한 감정은 그것의 원인을 제거하기보다 파괴 욕구로 발전하기 때문이다. 원한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의 내적 자연을 억압하듯 타인을 공격하고 파괴하는 폭동을 일으킨다. 호르크하이머는 이를 '자연 폭동'이라고 부른다. 자연 폭동의 방향은 정해져 있지 않다. 파괴적 공격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향할 수도 있고 처음 본 사람을 목표로 할 수도 있다. 파괴의 대상은 이처럼 언제나 대체 가능하지만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떻게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가 구조적으로 일어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원한 감정'과 '자연 폭동'을 이해하는 게 핵심입니다. 내적 자연을 억압하는 개인이 원한 감정을 갖고, 그게 자연 폭동으로 이어집니다. 이 포인트만 잡으시면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단이에요. 한 문장씩 읽어봅시다.

호르크하이머에 따르면, 외적 자연을 지배하기 위해 인간의 내적 자연을 억압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억압의 주체인 이성과 자아에 대한 '원한 감정'을 더 키워 간다.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등장합니다. 서술의 초점 잡고 들어가야 해요. 내용 자체는 쉽습니다. 자연(nature)을 지배하기 위해 스스로의 내적 자연을 억압한다는 건 계속 등장하던 내용입니다. 자연(nature)이 '외적 자연'이라는 키워드로 등장했을 뿐이에요. 가볍게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원한 감정'이에요. 자연을 지배하기 위해서 내적 자연을 억압하는데, 그 과정에서 억압의 주체인 '이성'과 '자아'에 대한 '원한 감정'이 자라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성과 자아는 당연히 도구화된 이성, 추상적 자아를 가리키겠죠? 내적 자연을 억압하는 맥락이니깐요. 이에 대한 원한 감정이 생깁니다. 아무래도 스스로의 내적 자연을 억압하다 보니, 부정적인 원한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특히 이중적 억압의 희생자로 전락한 다수의 대중이 원한 감정에 사로잡힌다.

그리고 대부분이 원한 감정을 갖고요. 아무래도, 내적 자연을 억압하는 건 대부분의 인간이 겪기 때문이겠죠?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중적 억압’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바로 뒷문장에서 설명해주지만, 일단 미리 생각해봐도 좋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내적 자연을 억압함과 동시에 타인(외적·인간적 자연)으로부터 억압받기 때문에 ‘이중적 억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일단 화제 또한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가 발생하는 과정을 알아보는 것이고 앞서서부터 등장했던 내용이니, 미리 생각할 수 있으면 떠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대중은 한편으로 자신의 자연적 충동을 스스로 억압해야만 하고, 다른 한편으로 보다 성공적으로 내적 자연을 통제할 사람들에게 의해 지배받는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제시하는 재진술 문장입니다. ‘자신의 자연적 충동을 스스로 억압’한다는 건, 스스로의 내적 자연을 억압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뒷부분은 누가 봐도, 타인으로부터 억압받는,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가 일어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2문단 마지막 문장에서도 언급했던 내용이니 자연스럽게 이해하셔야 해요!

#참고 문장

그런데 내적 자연을 철저하게 억압함으로써 성공한 사람이 이제는 그렇지 못한 사람을 지배한다.

이와 같이 억압받은 대중의 내적 자연이 억압의 주체인 도구적 이성에 대해 품은 원한 감정은 폭동의 잠재력이 된다.

네, 그렇게 원한 감정이 폭동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일종의 문제 상황이기도 해요. 참, 여기서 ‘도구적 이성’에 대해 원한 감정을 품었다는 것도 자연스럽게 읽어야 합니다.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내적 자연을 억압할 때 ‘이성의 도구화’가 일어나니까요.

일반적으로 원한 감정은 그것의 원인을 제거하기보다 파괴 욕구로 발전하기 때문이다. 원한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의 내적 자연을 억압하듯 타인을 공격하고 파괴하는 폭동을 일으킨다.

이것도 자연스럽게 읽으면 되는 문장입니다. 원한 감정이 폭동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합니다. 파괴적 욕구로 발전해서 폭동이 일어나는 것이니, 타인을 공격하고 파괴하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말 그대로 폭/동인 거예요.

호르크하이머는 이를 ‘자연 폭동’이라고 부른다.

여기서는 ‘자연 폭동’의 정의를 이해해야 합니다. 내·외적 ‘자연’을 억압받는 개인의 원한 감정으로 일어나는 게 자연//폭동입니다.

파괴적 공격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향한 수도 있고 처음 본 사람을 목표로 할 수도 있다. 파괴의 대상은 이처럼 언제나 대체 가능하지만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게 자연 폭동은 타인을 향하는데, 그 파괴적 욕구는 주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게 향합니다. 즉, 자신을 지배하는 타인(인간적 자연)에게는 향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문제 해결로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의 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배자가 아니라, 또 다른 약자를 공격하는 것이니까요. 아무튼 핵심은 자연 폭동은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를 해결할 수 없는 행위일 뿐이라는 점이에요.

#5문단

호르크하이머는 여기서 현대의 파시즘이 대중이 품고 있는 자연 폭동의 잠재력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현대적 파시즘은 내·외적 자연을 억압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체제에 자연 폭동의 잠재력을 포섭함으로써 보다 철저하게 대중을 착취한다. 예를 들어 나치는 도구적 이성에 의해 희생된 대중들이 가진, 이성에 대한 원한 감정을 유대인을 향한 자연 폭동으로 이끌어 낸 것이다. 그러나 자연 폭동은 억압된 자연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압을 영속시키는 데 기여했다. 도구적 이성의 전면화에 대항하는 자연적 인간들의 야만적 폭동은 표면적으로는 이성을 비하하고 자연을 순수한 생명력으로 추앙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성의 도구화를 촉진하였으며 내적 자연을 잔혹한 폭력의 주체로 발전시켰다. 이런 맥락에서 호르크하이머는 반이성적 자연 폭동은 도구적 이성의 지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본다. 이성을 거부하는 자연 폭동은 자연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 족쇄를 채우는 데 이용될 뿐이기 때문이다. 족쇄에서 벗어나려면 반이성적 자연 폭동에 의하지 않고, 겉으로 보기에 자연의 대립물인 이성이 먼저 비판적 사유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를 '현대적 파시즘'과 연결해서 설명하는 문단입니다. '현대적 파시즘' 또한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의 구조를 이용한 예시라는 점만 잡는다면 빠르게 뚫을 수 있는 문단이에요. 또, 마지막에 대안이 짧게 제시됩니다. 결국 인간에 의한 자연 지배에서, 인간 지배까지 나아가는 것의 출발이 '이성의 도구화'였다는 점을 바탕으로 쉽게 납득할 수 있어요.

호르크하이머는 여기서 현대의 파시즘이 대중이 품고 있는 자연 폭동의 잠재력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앞에서 봤던 자연 폭동의 내용이 '현대의 파시즘'으로 연결됩니다. 서술의 초점 잡고 들어갈게요!

그에 따르면 현대적 파시즘은 내·외적 자연을 억압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체제에 자연 폭동의 잠재력을 포섭함으로써 보다 철저하게 대중을 착취한다.

일단 내·외적 자연이 어떻게 억압됐는지는 다들 기억하시죠? 앞에서부터 계속 봤으니 따로 설명하지 않을게요. 현대의 파시즘은 '자연 폭동의 잠재력'을 포섭하여 대중을 착취한다고 합니다. 자연 폭동은 지배자가 아니라 주로 약자를 향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대중을 지속적으로 착취한다는 말이에요. 정작 지배하는 사람들에게는 폭동을 일으키지 않고, 약자에게만 일으키니까요!

예를 들어 나치는 도구적 이성에 의해 희생된 대중들이 가진, 이성에 대한 원한 감정을 유대인을 향한 자연 폭동으로 이끌어 낸 것이다.

그 예시가 바로 등장합니다. 나치즘이 성행할 때, 대중들은 자신의 원한 감정을 나치 그 자체를 향해 드러내지 않고, 소수자인 유대인을 향해 자연 폭동을 일으킵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예요. 포인트는 계속 반복됩니다. 자연 폭동이 지배자에게 향하지 않는다! 이것만 기억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자연 폭동은 억압된 자연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압을 영속시키는 데 기여했다.

역시나 아주 쉽게 납득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자연 폭동은 억압을 행하는 지배자를 향해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대중들은 지배는 지배대로 받는 상태를 계속 겪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억압은 지속되겠죠.

도구적 이성의 전면화에 대항하는 자연적 인간들의 야만적 폭동은 표면적으로는 이성을 비하하고 자연을 순수한 생명력으로 추앙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성의 도구화를 촉진하였으며 내적 자연을 잔혹한 폭력의 주체로 발전시켰다.

조금 까다로운 문장입니다. 그렇지만 핵심은 같습니다. 자연 폭동은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럼 하나씩 끊어서 볼게요.

도구적 이성의 전면화에 대항하는 자연적 인간들의 야만적 폭동은 표면적으로는 이성을 비하하고 자연을 순수한 생명력으로 추앙했지만,

‘도구적 이성의 전면화’는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인간이 대중을 지배하는 그 상황 자체를 가리킵니다. ‘인간에 의한 자연 지배 →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의 과정에서 이성이 도구화되고, 추상적 자아만 남게 되었으니까요. 그에 대항하는 ‘자연적 인간’은 역시나 내적 자연을 이중으로 억압받는 대중이겠죠. 그리고 ‘야만적 폭동’은 당연히 타인에 대해 공격성을 드러내는 자연 폭동을 가리키는 표현이구요.

어려운 건 이 부분입니다. 자연 폭동이 이성을 비하하고 자연을 순수한 생명력으로 추앙했다는 표현을 이해해봅시다. 일단 자연 폭동은 원한 감정으로부터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원한 감정은 ‘억압의 주체인 이성과 자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이성을 비하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성과 대비되는 자연을 순수한 생명력으로 추앙했다고 합니다. 자연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이성이 도구화되고 추상적 자아가 나타나니까 이성과 대비되는 자연을 추앙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자연//폭동이니까 자연을 추앙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결과적으로는 이성의 도구화를 촉진하였으며 내적 자연을 잔혹한 폭력의 주체로 발전시켰다.

그렇게 자연을 추앙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성의 도구화’를 촉진합니다. 결국 인간적 자연의 내적 자연 지배(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를 해결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자연 폭동은 폭력적인 방식으로 드러났으니 주체인 내적 자연을 폭력 주체로 만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호르크하이머는 반이성적 자연 폭동은 도구적 이성의 지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본다.

네,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내용이었죠? 자연 폭동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이성을 거부하는 자연 폭동은 자연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 족쇄를 채우는 데 이용될 뿐이기 때문이다.

또 비유적인 표현이 등장합니다만, 어렵지 않습니다. ‘자연에 족쇄를 채운다’는 말은 결국 내적 자연을 억압하는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는 뜻이에요. 혹은 현대의 파시즘이 자연 폭동의 잠재력을 포섭해, 자신들의 지배를 공고히한다는 말을 통해서 이해해도 좋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계속 억압받을 뿐이에요.

족쇄에서 벗어나려면 반이성적 자연 폭동에 의하지 않고, 겉으로 보기에 자연의 대립물인 이성이 먼저 비판적 사유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대안이 제시됩니다. 이 문제는 결국 이성이 도구화되고 비판 능력을 상실한 추상적 자아만 남았기 때문에 발생했으니,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성의 비판적 사유를 회복해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문제 요소 제거, 결핍 요소의 충족! 아주 간단한 대안 제시 방식입니다.

#지문 총평

2문단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포인트입니다. 또, 내적 자연, 외적 자연과 같은 키워드의 정의를 제시하지 않고 스스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식의 숨겨진 정의는 최근에 종종 평가원 지문에서도 등장하니 꼭 공부하시길 바랄게요. 대표적인 예시로는 21.11 예약 지문이 있습니다. 예약 완결권의 정의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시를 통해 스스로 이해해야 해요. 이외에는 비유적인 재진술이 빈번히 등장한다는 점, 추상적인 말들을 잘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 윗글의 '자아', '이성', '자연'에 대한 이해로 옳은 것은?

정답 : ②

- 지문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키워드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아, 도구화된 자아, 인간의 이성, 내적 자연, 외적 자연 등 사실상 내용 일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① 외적 자연은 추상적 이성과 자아를 가지고 있다.

→ '외적 자연'에는 인간적 자연과 비인간적 자연이 있었죠. 그중 비인간적 자연은 말 그대로 자연(nature)이었어요. 얘네는 이성과 자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꼭 '인간적 자연'과 '비인간적 자연'을 명확히 떠올리지 않더라도, "인간에게 지배받는 자연(nature)는 당연히 이성이나 자아가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골라도 좋습니다.

② 나에게 다른 사람은 외적 자연이면서 인간적 자연이다.

→ 정답입니다. 지문 해설에서 타인을 억압하는 지배자들을 '인간적 자연'으로 연결해서 이해하기도 했죠? 물론 지문 자체에서 이렇게 연결하지 않더라도, 선지만 보고도 판단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나(이성, 자아)'이외의 다른 사람이면서 '인간'이므로 '인간적 자연'일 것이니까요.

③ 나는 자아가 없는 내적 자연으로서 기계적으로 살아간다.

→ 자아가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그게 '추상적 자아'일 뿐이죠. 자칫 잘못하면 헛갈릴 수 있는 선지입니다.

④ 과거에 자연이었던 것이 이제는 자연이 아니며 자아도 아닙니다.

→ 지문에서 '나'와 '나 이외의 모든 대상'을 전부 '자연'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틀린 선지네요. 또 '내적 자연'이나 '인간적 자연'은 자아이기도 합니다.

⑤ 내적 자연이 자아를 지배한다면, 외적 자연은 이성을 억압한다.

→ 말 자체가 이상합니다. 내적 자연은 추상적 자아, 도구화된 이성으로부터 지배받는 대상이에요. 그리고 외적 자연이 '이성'을 억압한다는 말도 딱히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억압의 대상은 '내적 자연'이지 '이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성'은 방금 말했듯 내적 자연을 '억압하는' 대상이죠.

2. 윗글로부터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②

- 추론 문제입니다. 내용 일치 문제를 푸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다가가면 됩니다. 핵심 키워드와 화제 기억하면서 선지 판단해 봅시다.

① 인간에 의한 자연 지배는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의 또 다른 형태이다.

→ 화제 그 자체입니다. 인간에 의한 자연 지배에 성공함에 따라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로 귀결되었으니까요.

#선지 포인트 : 화제 이해하기

② 자연적 욕망을 강하게 억제함으로써 성공한 사람은 원한 감정을 갖지 않는다.

→ 원한 감정의 정의를 잘 파악해야 판단할 수 있는 선지입니다. 원한 감정은 내적 자연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선지에서 말하는 '자연적 욕망을 강하게 억제함으로써 성공한 사람'은 '내적 자연'을 성공적으로 지배한 사람입니다. 즉, 내적 자연을 성공적으로 지배했다고 하더라도, 원한 감정 자체는 가질 거예요.

#선지 포인트 : 화제 중심 읽기, 원한 감정의 정의

③ 다른 사람에 대한 폭력이 인간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미화될 수 있다.

→ 자연 폭동에 대해 물어보는 선지입니다. 이성을 비하하고 자연을 순수한 생명력으로 추앙합니다. 그리고 지문에서는 이걸 '도구적 이성의 전면화에 대항하는 자연적 인간들의 야만적 폭동'이라고 표현했죠. 즉, 자연 폭동은 도구적 이성의 전면화로 내적 자연을 지배받는 인간들의 해방을 위한 행동으로 미화될 수 있습니다. 실상은 지배 구조를 공고히할 뿐이죠.

#선지 포인트 : 자연 폭동의 정의, 비유적인 재진술

④ '자연 폭동'은 전체주의의 실체를 밝히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의 권력을 강화한다.

→ 네, 5문단의 핵심을 언급하고 있는 선지입니다. 자연 폭동을 화제와 연결해서 잘 읽었다면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연 폭동은 파시즘을 공고히하는 데에 이용된다고 했어요!

#선지 포인트 : 화제 중심 읽기

⑤ 내적 자연을 통제하는 데 실패한 현대인은 외적 자연의 지배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 역시나 화제를 바탕으로 지문을 이해했다면 판단할 수 있는 선지입니다. 내적 자연을 성공적으로 지배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지배한다고 했으니, 당연히 내적 자연을 통제하지 못하면 지배를 받을 확률이 높겠죠.

3. 윗글에 제시된 '호르크하이머'의 입장에 대한 비판으로 타당한 것은?

정답 : ①

- 호르크하이머는 인간의 자연 지배가 인간에 대한 인간 지배로 귀결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성의 도구화나 파시즘과 연결했구요. 대안으로는 이성의 비판적 능력을 제시했습니다. 이 포인트를 중심으로 선지 판단해봅시다.

① 이성이 비판 능력을 상실했다고 진단하면서 이성의 비판적 활동에서 희망을 찾는 것은 이미 사라진 것을 있다고 가정하는 자기 모순이다.

→ 바로 정답입니다. 호르크하이머는 인간에 의한 자연 지배 과정에서 이성이 도구화된다는 문제를 바탕으로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까지 설명했어요. 그리고 대안으로는 이성의 비판적 사유를 제시했죠. 즉, 이 선지가 말하는 대로, 호르크하이머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사라지거 없는 이성의 비판적 사유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모순입니다. 적절한 비판이네요.

② 개인적인 심리적 병리 현상으로부터 사회적 억압 구조를 설명하는 것은 개별을 보편으로 성급하게 환원시키는 일반화의 오류이다.

→ 허수아비 선지입니다. 호르크하이머는 '개인적인 심리적 병리 현상'에 주목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과 자연, 지배 구조 등 근본적인 것에 논했습니다.

③ 자연을 자기 보존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도구적 이성에 대한 비판은 자연 중심 사상을 가지고 이성을 격하하는 자기 기만이다.

→ 호르크하이머는 이성의 비판적 사유를 대안으로 제시했어요. 그런데 이성을 격하한다니요? 일종의 허수아비 선지

로 보면 됩니다.

④ 인간이 자연을 억압한다는 주장은 자연이 기계처럼 작용한다는 검증되지 않은 명제를 가정한 허구이다.

→ 조금은 평가원과 괴리감이 있는 선지입니다. 일단 현대 사회에서 자연이 기계처럼 작용한다는 건, 호르크하이머의 '생각'이 아니라 '팩트'로 제시된 내용입니다. 1문단 두 번째 문장에서 사실로써 제시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문의 맥락상, 자연을 지배하게 된 건 우리가 처한 현실이고, 이 자연 지배가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로 이어진다는 게 호르크하이머의 '생각'인 거죠. 호르크하이머의 생각이 아니라 사실로 제시된 내용을, 호르크하이머의 입장에 대한 비판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틀린 선지입니다.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가볍게 읽어보고 넘겨주세요.

⑤ 자연으로부터 해방된 인간이 자연을 억압한다는 비판은 '계몽'이라는 논점에서 이탈하고 있다.

→ 지문 어디에서도 호르크하이머가 '계몽'을 논점으로 잡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허수아비 유형에 가깝네요.